

1962年の 大學圖書館

— 그 機能을 中心으로 —

李 春 熙

一般的으로 圖書館의 構成要素를 말할 때, 資料(藏書), 場所(建物), 司書(職員) 세 가지를 든다. 大學圖書館에 있어서도 이 세 가지 要素는 그대로 適用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만 大學圖書館이라고 하는 特殊性이 要求됨으로, 公共圖書館이나 其他 다른 圖書館과는 그 內容이나 性格에 있어서 어느 程度의 差異가 있어야 함은 勿論이다. 即 藏書, 建物, 職員中 어느 것에 있어서나 大學圖書館으로서의 技能을 發揮할 수 있는 充實한 內容이 要求되는 것이다. 따라서 거기에는 어떤 基準이 있어야 할 것이며, 一定한 基準을 對象으로 하지 않고서는 大學圖書館의 發展을 論하기란 매우 困難한 일이다.

그런데 그 基準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늘 발생거리의 하나가 되어왔으며, 또한 뚜렷한 基準이 없는 것만도 事實이다. 大學設置基準令에 圖書館基準이 몇 가지 나오기는 하지만, 極히 非科學的인 數의 羅列이며, 決코 우리들이 滿足할 만한 것이 못됨으로,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 大學圖書館의 發展을 論할 수는 없다. 本稿에서는 다만 敘述의 便宜上 위에서 말한 바 세 가지 要素의 技能을 中心으로, 우리나라와 美國의 大學圖書館을 相互 比較해 보는 것으로써 끝일 가한다.

大學圖書館의 資料를 大別하면 圖書와 視聽覺資料 두 種類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우리나라 大學圖書館의 圖書 即 藏書의 量과 質을 보기로 한다. 統計 第1, 2表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 學生의 一人當 藏書保有量은 平均 20冊(1962年現在)에 不過하며, 美國의 그것과 比較할 때 約 三分之一 程度밖에 안된다.

韓 國 (第1表)

種別 年度別	學校 數	學生數	館數	藏書數	學生 1人當 冊數
1961	79	166,651	682	285,335	13.7
1962	85	128,562	753	1,072,616	20

(韓國圖書館協會 圖書館統計 1962와 文教統計要覽, 1962에 依함)

美 國 (第2表)

種別 年度別	學校 數	學生數	館數	藏書數	學生 1人當 冊數
1946~47					48.3
1951~52					57.0

(American Librery Annual and Book Trade Almanac, 1959에 依함)

그것도 美國의 10年前 統計와 比較된 것임으로, 現在에 있어서는 보다 많은 量의 不足을 가져올 것은 勿論이며, 더구나 그 동안의 莫大한 出版量을 考慮하게 되면 그 差異는 더욱 甚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뿐

이 아니라 우리는 圖書의 質에 對해서도 比較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質의 低下는 利用對象이 될 冊이 적어짐으로 事實上 量의 不足을 意味하기 때문이다.

統計上으로 나타난 우리나라의 大學圖書館藏書가운데는 所謂 大學設置基準令에 達하기 爲하여 圖書의 質보다는 量을 높 이려는 意圖에서, 一定한 選擇基準이 없 이 無計劃의으로 蒐集된 圖書가 많다는 點이다. 即 休紙의 價値밖에 안되는 除籍 對象圖書가 너무도 많이 包含되어 있다. 美國의 大學圖書館藏書의 質에 比하여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그 利用價値가 전혀 없는 除籍對象圖書가 차지하는 比重이 決코 적지 않다는것을 考慮할때, 事實上的 藏書量은 比較가 되지 않으리 만큼 다시 떨어지는 것이다. 아무런 全體的으로 보아서 學生 一人當 20冊이라는 平均數는 大學設置基準令에도 未達되는 數이니 無計劃의인 藏書收集은 앞으로 더 繼續될 可能性이 濃厚한 것이다. 그러나 近者에 와서, 大學圖書館에 따라서는 設置基準令에 達하게 되었음인지 圖書의 量보다는 質에 더욱 置重하고 있는 傾向이 엿보인다. 매우 반가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選擇基準이 없는 收書事務가 持續되는 限 大學圖書館으로서의 技能을 發揮할 수 없 음은 勿論이다.

第3表의 統計를 보면, 우리나라 學生이 一年동안에 利用한 冊數는 一人當 平均 12.6卷이니, 그 利用率에 있어서 美國 學生의 約 三倍(弱)나 높다. 이와같은 結果는 再論할 必要도 없이 우리나라 大學圖書館의 藏書量의 不足에서 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留意해야 될것은 우리나라 學生이 美國의 學生들 보다 圖

(第3表)

年 度		1952	1962
種 別	韓國		12.6
	美國	32.5	

(圖協 圖書館 統計, 1962와 American Library Annual and Book Trade Almanac, 1859에 依함)

書館에 對한 要望이나 向學熱에 있어서는 오히려 높다는 事實을 統計表는 暗示해 주고 있다는 點이다. 美國의 大學圖書館 藏書量이 우리의 그것보다 三倍나 되기 때문에 그 利用率에 있어서도 量에 正比例하여 三倍가 높은것처럼 統計上으로는 얼른 그렇게 생각되기 쉬우나, 事實은 그렇지 않은것 같다.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大學圖書館 藏書 가운데는 利用되지 않는 除籍對象 圖書가 많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藏書의 太半은 外書로 構成되었다. 特히 學生들의 言語上의 핸디캡으로 그 利用率이 낮은 日本圖書의 比重이 크다는 點을 들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實際 利用되고 있는 藏書는 얼마 되지 않으며 事實上的 藏書量은 美國이 統計上的 三倍보다는 훨씬 많은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 利用率에 있어서도(藏書量에 正比例하는 것이라면) 三배가 더 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事實上 三배밖에 안된다는것은 우리나라 學生의 圖書館 利用率이 오히려 美國의 學生보다는 높다는것을 말해 주는 것이며, 向學熱이 높다는 意味도 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해서 萬一 우리나라의 大學圖書館 藏書의 質과 量이 美國의 그것과 對等한 것이라면 그 利用率에 있어서 美國보다

는 越等히 높을것이라고 推測되는것이다.

이와같이 冊에 對한 讀者의 要求는 先進國家에 못지 않게, 오히려 強하다고 할 수 있는데 比하여 現實情은 그와는 反對로 그 要求에 應하지 못하고 있다. 圖書館의 技能이 그 利用率을 높이는데 있다면, 우리나라 大學圖書館의 現實은 첫째 藏書量의 不足으로 技能以前에 屬하고 있으니 우리나라 大學圖書館中에는 이름만 의 圖書館이 많다는것을 指摘하지 않을수 없다.

다음은 視聽覺資料에 對해서 簡單히 살펴 보기로 하겠다. 韓國圖書館協會의 統計에 依하면 75개 大學圖書館中 視聽覺資料를 蒐集하고 있는 圖書館이 32館이며 圖書館內에 視聽覺資料室을 가지고 있는 圖書館이 16館에 不過하다. 現代教育에 있어서 視聽覺資料가 차지하는 比重이 漸次로 높아지고 있음은 두말할 必要도 없다. 先進國家의 大學圖書館에서는 視聽覺資料의 蒐集과 그 施設에 莫大한 經費를 드리고 있으며, 高度의 活用率을 나타내고 있다. 例를 들면 스페인語를 工夫하는 學生은 圖書館 視聽覺資料室에서 링커포운을 通하여 直接 原發音을 들어가며, 學習할수 있으며, 스페인의 風俗을 알고 싶은 學生은 映畫필름을 通하여 直接 눈으로 보고 배울수 있으며, 섹스피어 時代의 劇을 研究하는 學生은 天然色 슬라이드를 通하여, 當時의 劇場構造 或은 코스튬음 등에 關한 보다 正確하고 具體的인 知識을 얻을수 있음으로 冊을 通해서 알게 되는것보다는 더욱 效果的인 學習方法이라 하겠다. 이와같은 教育的 技能이 現代圖書館에 주어질 큰 課題의 하나라고 할수 있다면, 資料蒐集에 있어서도 視聽覺資料

를 度外視할수는 없게 되었으며, 學術의 研究活動에 最大限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 資料의 具備와 高度의 施設이 切實히 要望되는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大學圖書館에 있어서의 視聽覺資料의 蒐集과 施設은 極히 初步的인 段階에 놓여 있으며, 圖書館으로서의 教育的 技能을 充分히 發揮할수 없는 處地에 있다. 統計상으로 나타난 16개 圖書館의 視聽覺資料室이라는것도 제대로 完備된 施設과 써비스를 못하고 있는것들이며, 있다고 해도 部分的인 써비스의 範圍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資料室도 없는 圖書館에서 視聽覺資料를 蒐集하고 있다는 나머지 16개의 圖書館은 레디오나 테이프레코더 或은 映寫機等이 한두개 있을 程度이며 實際 써비스를 할수 있는 資料는 거의 없는 것이다. 그것마저도 없는 大學圖書館이 많으니 寒心한 일이 아닐수 없다.

다음은 參考圖書館의 施設과 技能을 보기로 하겠다. 大學圖書館에 있어서 가장 큰 써비스의 中心은 參考圖書館에서 비롯해야 한다. 大學의 使命은 學問이며, 學問은 調查研究의 過程을 거쳐야 하며, 調查研究에 가장 많은 도움을 줄수 있는곳이 參考圖書館이다. 75개 大學圖書館中 參考圖書館을 가지고 있는 圖書館이 不過 33館밖에 안된다. 例年에 比해서 相當히 發展된 數에는 틀림이 없으나, 參考圖書館 本來의 目的과 技能을 充足하기까지에는 아직도 遙遠한 感이 있다. 參考圖書館의 技能이 아직도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原因이 圖書館에 따라서 여러가지 있겠지만, 全體의으로 보아서 訓練된 有能한 參考司書의 不足에 가장 큰 原因

의 하나가 아닌가 한다. 첫째로 參考圖書室(Reference Desk)에 나가 앉아있는 職員이 讀者의 信憑感을 얻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參考資料의 不足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參考圖書室에 備置된 資料의 大半은 外國出版物이며, 그중에서도 日本에서 出版된 參考資料가 차지하는 比重이 적지 않다. 學生들은 日本語에 能하지 못함으로 그들이 主로 利用하는 資料는 國內出版物인데 비해, 國內에서 出版되는 參考資料는 大端히 적음으로 도저히 利用者의 要求에 應할수 없는 實情에 있다. 따라서 參考圖書室의 利用率은 低調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으며, 資料의 貧困은 參考圖書室 또는 Reference Work 發展에 큰 癌이 되고 있는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때 參考圖書室에 備置될 資料에 關하여 特히 우리나라 大學圖書館에서는 再檢討가 있어야 할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은 一般讀者의 參考圖書室에 對한 認識이 稀薄하다는 點이다. 그러므로 Library Publicity가 비단 大學圖書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全體 圖書館界의 큰 使命의 하나라는것을 아울러 指摘하고 싶다.

아무리 좋은 資料와 建物이 具備되어 있어도 훌륭한 職員이 없으면 充分한 活用을 期할수는 없다. 第4表의 統計에 나타난것처럼 우리나라의 大學圖書館은 專門職을 云云하기전에 먼저 人員의 不足을 指摘하지 않을수 없다. 內部施設의 未備(參考室, 視聽覺資料室等)로 美國과 같이 많은 人員이 必要없다는 點을 勘案하더라도 亦是 不足하다.

勿論 人員이 많다고 해서 일이 다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꼭 必要한 最小限의

第4表

國別	種別	館數	職員數		館當平均	
			正職	臨時職	正職	臨時職
韓國 (1962)		75	522	?	7	?
美國 (1952)		1,509	13,341	17,966	9	12

臨時職員: 우리나라는 入手된 統計가 없음으로 計上하지 않았으나, 問題로 삼을 만한 計數는 되지 않은 것 같다. 美國에 있어서의 臨時職員은 Student Library Assistants를 말함)

人員數는 確保되어야 한다.

美國에 있어서의 人力評價는 大端히 嚴格하다. 情實人事가 橫行하던 우리나라와는 그 實情이 다르다. 卽 5의 일이 要求되는 地位에는 5의 能力을 가진 사람이라야만 採用한다. 萬一 그사람이 5의 일을 完遂하지 못하면 豫算上의 支障을 초래함으로 그 자리를 내 놓아야 한다. 그럼으로 美國의 圖書館職員은 專門職 非專門職을 莫論하고 말은바 일을 充分히 해낼수 있는 사람으로 構成되어 있기 때문에 半주먹구구式으로 採用된 우리나라 圖書館의 職員보다는 平均 그 能力이 높다고 보아야 할것이므로 더욱 그 不足을 말하지 않을수 없다.

人員이 不足하면 한사람이 能力以上の 責任을 맡게됨으로 責任이 疎忽해질 뿐만 아니라, 圖書館의 技能을 癱痺시키는 結果를 招來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大學圖書館은 人員의 不足으로도 제 技能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實情에 있는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敷衍할것은 圖書館專門職에 對한 問題이다. 大學圖書館에 있어서 職員을 除外한 다른 部門들은 時間의 經過와 더불어 漸次的으로 改善發展되어온것

만은 事實이다. 그러나 職員의 地位向上과 待遇改善에 對한것, 卽 司書職의 法的인 保障問題는 全혀 踏步狀態에서 1962年을 또 보내게 되었다. 이 問題는 今年度 全國圖書館大會에서도 크게 論議된바 있었다. 이 問題에 있어서 根本的인 解決을 보지 않는限 大學圖書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全體圖書館界에서는 有能한 人才를 確保할수 없으므로 圖書館發展에 주는 影響이 決코 적은것이 아니라는 點을 여기서 다시 強調하고 싶다.

또 한가지 附言하고 싶은것은 今年 여름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있었던 全國圖書館大會 大學圖書館部會이다. 大學圖書館部會에서 많은 問題들이 論議되었

지만, 遺憾이나마 當時의 時間이 促迫하였던 關係로 우리들의 結論을 내지 못한것이 해를 보내게 되었으나, 아무런 이러한 痛임이 있었다는 그 事實만으로도 높이 評價되어야 할줄로 믿는다. 誇張이 될런지는 모르겠으나, 今年은 大學圖書館 運動의 첫 발자욱을 드린 해라고 筆者는 보고싶다. 앞으로 大學圖書館部會를 強化育成시킴으로써, 大學圖書館運動의 기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쓰다보니 不足과 不滿투성이의 덕두리가 되것같다. 充分한 資料를 入手치 못하여 大端히 疏略하게 되었음을 謝過하는바이다.

(筆者: 成均館大學校 圖書館)

延世大學校 圖書館學叢書 出刊!

No. 10

白 麟 著.

奎章閣 藏書에 對한 研究.

(값 250 원)

No. 11.

千 惠 鳳 著.

古書目錄에 있어서의 當面한 諸問題.

(값 250 원)

No. 12.

明 在 暉 著.

圖書館의 管理上 組織.

(값 150 원)

爲하여 切實히 要求되는 定期刊行物 Index 는 모든 圖書館들이 이의 作成을 促求하여 왔으나 資料不足, 技術的 整理方法, 人員, 豫算不足등 많은 難關으로 實現치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空軍中央圖書館은 1961年 1月부터 國內外 定期刊行物 20餘種을 撰定하고 記事內容中 主要한 項目을 索引하여 當圖書館制定 “定期刊行物 索引”을 分類表에 따라 整理, 作成하여 月 1回씩 팜프렌으로 發刊하고, 6個月에 이를 合하여 綜合定期刊行物 Index로 發刊하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陸軍士官學校圖書館은 時事問題索引을 月 1回씩 팜프렌으로 刊行하고 있다.

(2) 國際資料交換業務의 增進

最高會議圖書館은 國內資料蒐集 및 相互資料交換業務는 勿論, 國家政策 및 立法에 關한 外國의 參考資料를 迅速히 蒐集하고 國內資料의 海外 紹介等을 圖謀하기 爲하여 1955년부터 國際資料交換業務를 實施하여 왔던 것이다. 當圖書館은 其間 積極的인 交涉進追으로 1962年 12月末 現在로 15個國, 75個處와의 資料交換業務를 實施하고 있으며 4個國과의 交涉이 進行되고 있다한다. 이 밖에도 韓國研究院에서 14個國 100餘處, 農業協同組合中央會圖書館이 34個國 130餘處와 資料交換業務를 行하고 있어 앞으로 國際資料交換業務의 擴大와 活潑한 움직임을 約束하고 있다.

(3) 圖書館人士座談會開催

國防大學院圖書館은 지난 10月 11日 16名의 各圖書館人士를 招請하고 同大學院의 現況 紹介와 施設을 視察케 하고 圖書館運營問題에 關한 座談會를 開催하였다.

특히 設置機關當局者로 하여금 圖書館에 對한 올바른 認識과 理解를 높이고 圖書館運營上의 缺陷을 發見, 改善을 爲한 參考의 助言을 주웠으며 各圖書館이 共通의 으로 當面하고 있는 資料選擇, 亡失圖書處理 및 資料交換問題等을 討議하였다.

(4) 圖書館姊妹結緣

國民運動으로서 主로 都市와 農村間의 姊妹結緣運動은 農村에 對한 文化普及와 指導, 育成을 促進할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였거니와 아울러 農村文化의 普及와 傳達의 媒介機關으로서의 農村文庫의 指導, 育成은 時急하고 重要한 圖書館事業이라 아니 할수 없을 것이다. 空軍中央圖書館과 京畿道 坡州郡의 坡州圖書館은 지난 6月 26日을 期해 最初로 圖書館間의 姊妹結緣을 맺고 相互協助와 農村文庫發展을 爲한 指導育成을 約束하였다. 앞으로 더욱 많은 農村文庫의 指導育成을 期할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四. 맺는 말

特殊圖書館들은 各機關, 團體의 必要性에서 設置되었고, 要求에 따라 運營되어 가고 있다하지만 많은 數의 圖書館들은 確然한 自己姿勢를 갖지 못한채 公共, 大學, 學校 및 特殊圖書館의 어느 것도 아닌 廣範圍하고 애매한 性格에 內容의 貧弱함을 나타내고 있어, 올바른 姿勢의 確立과 內容面에 充實해야 할일이 時急히 要求된다. 다음으로 年度中에 不足感을 느끼는 것은 보다 活潑한 事業과 圖書館對外活動, P.R.의 不足等을 느끼게 된다. 事業에는 不可分 豫算財政의 뒷바침이 隨伴되어야 하겠지만 적은 豫算範圍에서라도 圖書館人들은 創意的이고, 進取的

인 構想과 勞力으로 積極的인 對外活動奉仕와 圖書館運營의 改善等を 實行해야 할 것이다. 圖書館의 存在가 稀微하고 따라서 利用者와 當局者의 그릇된 認識을 주게 된다면 健全한 發展을 爲해 不幸한 일이 아닐수 없다. 또한 特殊圖書館界는 公共, 大學, 學校等 어느 圖書館界 보다도 專門職의 不足을 느끼고 있다. 設置機關의 圖書館에 對한 認識不足은 그릇된 人事政策으로 非專門職에 依해 자칫 그릇된 方向으로 運營되어지는 것이다. 이런 見地

로 보아 今年度에 延大 및 梨大의 兩大學校의 圖書館學科 卒業生들은 專門職이 不足한 圖書館界에 큰 曙光이 아닐수 없다. 하루速히 專門職에 依해 健全한 圖書館發展을 期할수 있어야 할것이다. 事實上 1962年度에는 무엇을 하였고 무엇이 發展되었다고 하기에 앞서로의 할일이 너무도 많은것 같다. 오직 圖書館人의 團結과 보다 意欲的이고 獻身的인 勞力만이 特殊圖書館을 發展시키고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圖書館事業을 빛나게 할것을 바랄뿐이다

(筆者 國防大學院 圖書館)

圖書館用語集

— 解 說 附 —

韓國圖書館協會 技術委員會 編

서 울

社團 韓 國 圖 書 館 協
法 人

1962

(값 300 원 限定版)